

주요 자산 요약

10월 30일 오전 9시 기준(전주 대비)



가상자산 시가총액

5,310조

▲ 120 (+ 2.31%)



가상자산 총 거래량

240조

▼ 42 (- 14.89%)



비트코인

164,537,000원

▲ 1,479,000 (+ 0.91%)



이더리움

5,837,000원

▲ 73,000 (+ 1.27%)



USDT

1,425.35

▼ 6.17 (- 0.43%)



나스닥

23,958.47

▲ 1,218.07 (+ 5.36%)



코스피

4,105.95

▲ 270.16 (+ 7.04%)



달러인덱스

99.14

▲ 0.2 (+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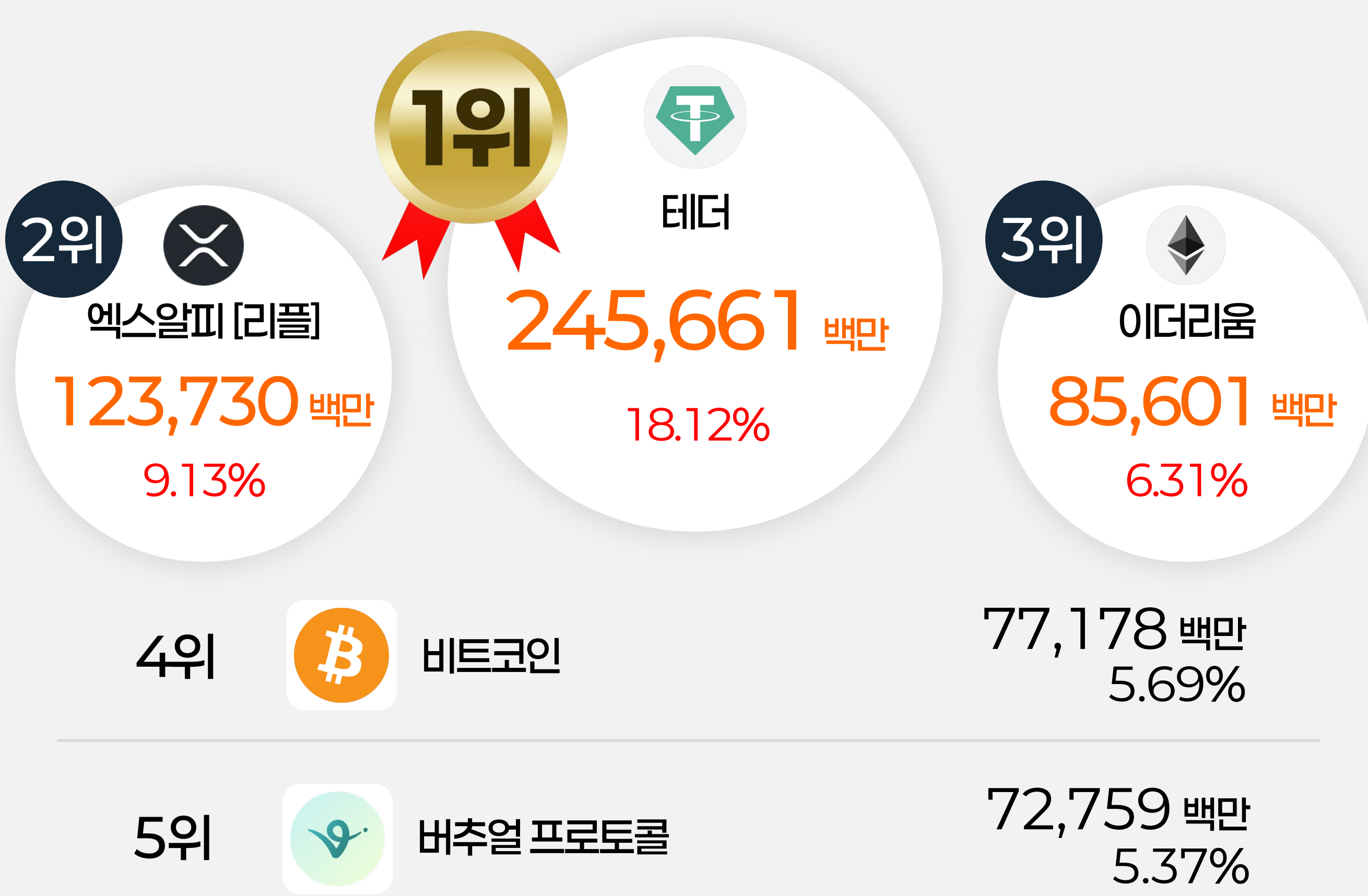
주간 급등 코인

지난주에 샀더라면?

빗썸 원화 마켓 주간 상승률 상위 5개 코인



빗썸 원화 마켓 주간 거래량 상위 5개 코인



* 주간 급등 코인은 2025.10.23 ~ 2025.10.29일 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거래량의 %는 기간 내 빗썸 총 거래량 대비 비중입니다.

주간에 가장 핫했던 기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가상자산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FOMC

지난주 가상자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다. 미 금리 인하 기대감 반영으로 상승하던 가상자산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 전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축소하며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준비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FOMC 정례회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개인소비지출(PCE) 등의 지표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유동성과 방향성을 가를 핵심 변수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9일(현지 시각) 시장의 예상과 같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시장은 Fed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 4.00%로 조정할 가능성을 96.7%로 보고 있었다.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커졌지만, 지속 중인 인플레이션 압력과 30일째 이어지는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연준은 이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줄곧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가 지난 9월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선 두 번째 금리 인하이다.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2022년 6월 개시한 양적긴축(QT)을 오는 12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아서 헤이즈 비트맥스 공동 창립자는 "양적긴축은 이미 사실상 종료됐다. 내년부터 미국 내 유동성 공급이 본격 재개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늘 12월 연내 한 차례 추가 인하 신호를 기대했던 시장은 파월 의장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에 실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하락세로 돌아섰고,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FOMC 이후 시장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면 회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30일 열릴 두 정상 회담으로 인해 양국의 무역 협상 낙관론은 한층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업인 행사에서 "협상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앞서 26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목요일 회담에서 논의할 성공적 프레임워크를 갖췄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의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연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100% 관세 인상 보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체적 합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의 긴장 완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국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8% 이상 급등한 전례가 있어, 이번 회담 결과가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도 변수로 인식된다. 미국 노동시장은 현재 비트코인 유동성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오는 30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11일까지의 지표다. 코베이시 레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주 연방 공무원들의 신규 청구는 전주 대비 121% 급증해 7,244건에 달하며, 이는 2019년 셧다운 이후 최고치다. 셧다운이 시작된 10월 1일 이후 연방 직원들의 실업수당 신청은 누적으로 1,200% 증가했고, 지속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 9% 상승해 9,430건을 기록하며 최근 3년 반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9월 PCE(개인소비지출)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다. 8월 미국 PCE 인플레이션은 2.7%로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가상자산 매체들에 따르면 이처럼 금리 인하 기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부 셧다운이라는 변수가 동시에 맞물린 이번 주는 가상자산 시장에 큰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투기성 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는 유동성을 확대하며 가상자산 가격에 상승 모멘텀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거시 경제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 주 변수에 따라서 포지션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물가의 흐름과 중앙은행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큰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만큼 적극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CEO인사이트] DeFi에서 RWA로...

블록체인 금융의 무게 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미국서 알트코인 ETF...

미국에서 솔라나(SOL), 라이트코인(LTC)...

빗섬에 새롭게 추가된 가상자산



빗섬 인사이드



[이벤트] 빗섬 x 비타본바이오, 콜라보 기념...

꽝은 없섬! 당첨은 있섬! 혜택이 쏟아지는 빗섬!



[안내] 스마트한 투자를 위한 도우미, 'AI...

스마트한 투자를 위해 'AI 일일시황'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제도 운영 안내

빗섬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 본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를 유도하거나 권장할 목적이 없으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 투자 여부, 종목 선택, 투자 시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저작권은 (주)빗섬에 있으며,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